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 성 구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 회장)

당뇨인 여러분!

정해년(丁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萬事亨通)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아침에는 몸을 깨끗이 하고 한해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한해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새해 아침 어떤 기원을 하시고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금년도는 특히 600년만에 돌아오는 황금돼지해라고 하니 여러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을 기대해 봅니다.

새해 아침 마음먹는 여러 다짐과 약속 중에 우리 당뇨인에게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당뇨병 관리일 것입니다. 매년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반성과 새로운 계획을 해봅시다만 항상 부족함과 아쉬움이 남을 것입니다. 2007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당뇨인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뇨병'을 현상에서 받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당뇨병을 깨끗이 치료해서 완치할 수 없는 한 나의 상태에 맞는 관리방법을 하루라도 빨리 익혀 내몸에 맞게 관리해나가는 것이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입니다. 당뇨병은 너무도 정직해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방치한 만큼의 결과가 여러 합병증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면 식사, 운동, 약물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정성껏 관리하면 유병기간에 관계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 관리에 대한 정보와 교육은 의료진과 당뇨 교육팀 또는 책자 등을 통해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한국당뇨협회에서도 교육사업, 홍보사업, 출판사업을 통해 여러분들께 당뇨병 소식과 최신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한가지가 아니고 사람마다 매우 다양한 사항이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 그 치료방법과 관리방법이 다릅니다. 나에게 맞는 관리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나의 당뇨병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당뇨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당뇨병 관리에 대한 지식과 정보 습득을 통해 나의 당뇨병을 올바르게 관리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뇨인은 스스로 '나의 당뇨병 주치의'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인 당뇨병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당뇨인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과 아울러 여러분의 건강과 건투를 기원합니다. <img alt="Small logo or symbol at the end of the text." data-bbox="520 895 545 910"/>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종 구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관)

2007년 丁亥年(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월간당뇨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당뇨병은 전 세계적으로 약 2억명의 환자가 있는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우리나라도 당뇨병환자가 최소 300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50만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은 초기에 뚜렷한 자각증상이 없기 때문에 방치해 두기 쉬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다양한 심혈관계 합병증뿐만 아니라 족부절단, 실명 등 중증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생활습관 개선, 약물치료, 합병증에 대한 조기대처 등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과 장애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당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당뇨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운동·영양·비만관리 사업, 당뇨병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당뇨병 조기발견을 위한 국가 건강검진사업, 만성신부전환자에 대한 의료비 감면 및 지원사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는 고혈압·당뇨병환자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치료일정 및 교육 기회 안내, 체계적인 합병증 예방·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치료비 지원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당뇨병을 관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환우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과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합쳐진다면 얼마든지 당뇨병을 잘 조절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환자와 월간당뇨 독자 여러분. 다가오는 2007년 더욱 더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img alt="Decorative graphic of a person's silhouette with arrows pointing to health-related icons."/>